『신앙과 학문』, 제 13권 3호 (2008. 12), 9-55.

교육 수월성(excellence)에 대한 기독교적 재개념화와 대학입시의 개혁[1)]

강영택(우석대 교육학 교수)

논문초록

본 연구는 수월성과 대학입시를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핵심 사안으로 보고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는 수월성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수월성에 대한 주류담론들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학자들의 수월성에 대한 논의로부터 수월성의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인 '다양한 수월성,' '사회적 수월성,' '도덕적 수월성'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수월성에 대한 네 가지 원리들을 제시하였다. 수월성은 다양함 가운데 조화를 추구해야 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수월성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수월성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입시에 대한 논의에서는 먼저 현행 입시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수월성의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시의 개혁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입시가 진정한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개혁과 함께 사회적 여건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교육 수월성, 기독교적 수월성, 평등성, 대학입시, 교육개혁

---

*2008년 11월 13일 접수; 12월 11일 1차 수정; 12월 17일 2차 수정; 12월 20일 게재확정.

1) 이 논문은 2008년 11월 8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I. 서론
II. 교육수월성에 대한 이해
III. 교육수월성에 대한 확장된 논의
IV. 교육수월성과 한국의 대학입시
V. 결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의 교육은 분주하다. 학교도 바쁘고, 학생도 바쁘고, 부모도 바쁘고, 사회도 바쁘다. 그 분주함 한가운데 대학입시가 존재한다. 입시가 분주함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내용이다. 그러므로 대학입시가 마무리될 때 한국교육의 분주함은 끝이 난다. 분주함이 무슨 잘못인가? 분주함은 게으름보다 훨씬 도덕적이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분주함은 치명적인 문제를 낳는다. 그것은 사색과 반성의 결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색과 반성이 결여된 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분주하게 대학입시에 몰두하는 것은 그 일에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상정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교육을 해서 탁월함(excellence)[2]을 이루면 대학입시에서도 성공할 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대학입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나라들이 교육수월성 제고를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역시 수월성 제고를 위해 대학입시 경쟁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추구하는 수

2) 영어 excellence를 수월성, 탁월성(함), 우수함 등의 단어들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한다.

월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입시경쟁을 통해 길러진 '탁월한'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수월성 제고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국가경쟁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현재의 대학입시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탁월함을 길러주는가? 혹 대학입시가 아이들의 무한한 탁월성의 가능성을 오히려 억압하지는 않는가?

본 연구는 우리교육의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위에서 제기한 질문들을 생각해보는 반성의 시간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우리교육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인지 함께 숙고해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교육적 주제들을 다룬다. 교육적 수월성이라는 개념과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이다. 교육수월성은 학교교육의 일반적인 목표이고, 대학입시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목표이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월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한 교육(학)적 논거와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가 교육적 수월성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수월성 담화와 대학입시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발견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월성에 대한 재개념화를 시도하고 대학입시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추구해야하는 교육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도록 요청할 것이고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주한 교육활동들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적 목표를 정립하여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분주한 교육활동들이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우리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수월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다양한 능력들을 골고루 개발시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뿐 아니라 그 아이들의 다양한 우수함이 만들어갈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데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주제를 고찰한다. 먼저 교육수월성에 대한 탐구이고, 다음 수월성과 대학입시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수월성은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한 방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수월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다. 수월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교육 자체를 보는 관점과 관계 한다 (Prakash adnd Waks, 1985). 그러므로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강구하는데 있어 수월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월성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덧붙여 수월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했던 미국에서의 수월성 담론도 고찰할 것이다. 수월성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월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수월성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나서 성경으로부터 수월성에 대한 중요 원리들을 찾아본다.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수월성과 대학입시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먼저 현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가 교육적 수월성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는지 아니면 장애요소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전반부에서 새롭게 개념화된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입시제도와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갖는 연구 질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수월성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수월성에 대한 담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수월성에 대한 재개념화를 위해 수월성의 어떤 요소

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셋째, 성경은 교육수월성에 대해 어떤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넷째, 현 대학입시 제도는 수월성의 추구라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다섯째, 재개념화된 수월성을 추구하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입시와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로 문헌조사에 의존하였다. 수월성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부의 수월성에 대한 보고서와 주요 언론에서 발표된 관련 글들과 미국 정부의 주요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수월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위해서는 컴퓨터 검색을 통해 유사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성경본문을 찾아 분석을 하거나, 단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비유, 인물, 본문 등을 찾아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외 수월성에 대한 논의와 대학입시에 대한 분석은 관련 학자들의 연구 성과물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교육수월성에 대한 이해

1. 수월성의 개념

교육 수월성에 대한 이해는 사람과 사회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수월성을 평등성과 연계하여 이해하고 논의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교육수월성의 추구는 평등성을 약화시키고 교육평등성의 강조는 수월성의 퇴조를 가져온다는 식의 논의가 많다. 그러한 논의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먼저 수월성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소개한 뒤 평등성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수월성이란 그 단어의 어원과 관계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월성이 영어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하여 '~보다 뛰어난 (excelling)'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더 우수하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수월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월성의 헬라어인 *arete*와 관계해서 수월성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재능/잠재능력을 충분히 개발하는 책무성'이란 의미로 사용된다(Purpel, 2007). 헬라어 *arete*가 수월성(excellence) 혹은 장점/덕성(virtue)으로 번역되는 것으로 볼 때 개인이 재능을 충분히 개발하여 갖고 있는 장점 혹 덕성이 곧 수월성이 되는 것이다.

수월성의 개념에 대해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한 사람은 죤 가드너 (J. W. Gardner)로, 그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잠재능력으로서의 수월성과 사회전체에 활력을 주고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수월성이 있다고 한다(Gardner, 1977). 한국의 학자들 역시 가드너의 개념 설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박성익(2006; 3)은 여러 학자들의 수월성에 대한 개념을 검토한 뒤 수월성을 "개인적,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영역에서 최고의 수준을 성취하는 것"으로 정의 내렸다. 이군현(2000; 23)은 수월성을 "특출한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과정 및 도덕적 가치에 대한 추구"라고 정의 내려 수월성이 지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자(2002)는 학습자 개인의 적성과 능력의 발휘를 중시하는 '개인적 수월성,' 교과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인 '교과적 수월성,' 교육조건의 평등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뛰어난 수준에 도달하는 '사회적 수월성'으로 구분하여 수월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89; 320)에서 발간한 교육학용어사전에 따르면 수월성은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최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p.320)"으로 정의 내려지며, 이 개념은 가치에 대한 다원적 접근과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기초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박종필, 2005).

프라카쉬와 웨익스(Prakash and Waks, 1985)는 기존의 수월성에 대한 논의들이 내포하고 있는 수월성의 네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교육을 보는 관점과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한다. 첫 번째 개념은 숙련(proficiency)으로서의 수월성이다. 수월성은 기본기술이나 지식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숙련을 보이며, 이는 표준화된 시험에 의해 측정된다고 본다. 이 때 교육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생산으로서의 이미지를 갖는다. 두 번째 개념은 학문적 정통(mastery)으로서의 수월성이다. 다양한 학문/지식 분야에 입문하여 그 분야의 지식체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수월성이다. 이 개념은 교육을 인지적 사회화 과정으로 보는 관점과 관계한다. 세 번째 개념은 자아실현으로서의 수월성이다. 수월성은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개인적 인성(personality)을 온전히 드러낼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해는 교육을 자아각성과 개인적 성장을 돕는 활동으로 보는 관점과 관계한다. 네 번째 개념은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수월성이다.

〈표 1〉 수월성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들

종류/ 연구자	정의
어원적 의미	· excelling (영어): ~보다 뛰어난 · *arete* (헬라어): 개인이 재능을 충분히 개발하여 갖고 있는 장점 혹 덕성 (virtue)
가드너 (J. Gardner, 1977)	·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잠재능력으로서의 수월성 · 사회전체에 활력을 주고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수월성
김경자(2002)	· 개인적 수월성: 학습자 개인의 적성과 능력의 뛰어난 발휘 · 교과적 수월성: 교과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 · 사회적 수월성: 교육조건의 평등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뛰어난 수준에 도달하는 상태
프라카쉬와 웨익스 (Prakash and Waks, 1985)	· 숙련으로서의 수월성 · 학문적 정통으로서의 수월성 · 자아실현으로서의 수월성 ·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수월성

수월성은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위한 자아실현이다(Starratt, 1996). 각 개인의 수월성은 공공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의 완수와 관계한다. 이러한 수월성에 대한 이해는 교육을 공동체에서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서 도출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수월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도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수월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수월성은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능력의 발휘일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 신장을 통한 자아실현과 관계하며 이는 결국 사회의 공공선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음 수월성과 함께 종종 논의되는 평등성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등성은 '동일성(sameness)'과 '적합성(fittingness)' 혹은 '공정성(fairness)'이라는 두 가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김경근, 2006). 동일성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함으로 모두가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교육의 기회는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져야 교육적 평등성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다음, 적합성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각자에 적합한 대우를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기회나 자원이 교육 대상의 상황에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교육적 평등성이 이루어진다. 교육의 평등성을 보다 세분하면 교육기회, 교육조건, 교육결과의 평등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성은 다시 허용적 평등관과 보장적 평등관에 의해 구분되기도 한다(고요한, 1989; 김신일, 2000). 허용적 평등은 교육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만, 보장적 평등은 허용된 교육기회를 사람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다른 제반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조건의 평등성은 학교의 시설, 교원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간 수준의 차이를 해소함으로서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결과의 평등성은 교육기회나 교육조건의 평등성으로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없다고 보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학생들에게 보상조치를 취함으로 결과가 동등해지도록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교육평등성의 개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수월성과 평등성의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볼 때 이 둘은 결코 대립·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동반·조화의 관계일 수 있음이 드러난다(고요한, 1989; 김성수, 2006; 문용린, 2002). 즉, 수월성이 개개인의 다양한 잠재능력의 개발이며, 적합성으로서의 평등성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면 이 둘은 함께 추구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2. 수월성 담론이 갖는 의미

우리나라에서 교육수월성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에 발간된 '교육행정백서'에서 문교부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고, 1987년 '한국교육개혁심의회의'에서 보고한 '10대 교육개혁'에서도 교육수월성을 중요한 교육개혁의 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요한, 1989). 그러나 수월성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전 국가적 관심사로 제기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이다. 1974년 이후 시행되고 있던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수월성의 문제가 주요 정치적 담론으로 등장하였다. 즉,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교육 수월성이 크게 쇠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수월성에 대한 관심은 바로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와 논의로 이어져 2000년 들어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에 영재학교가 처음으로 개교하기에 이르렀다(박종필, 2005). 수월성에 대한 이러한 국가적 관심은 마침내 2004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이라는 수월성교육을 위한 대책안을 발표하게 했다. 이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시 2007년 10월에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에서는 수월성교육 대상자 및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 2010년 까지 전체 초, 중,고등학교 학생의 5%를 수월성교육의 대상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수월성 교육을 위해 영재학교의 추가 설립, 과학고등학교(이하 과학고)의 확대,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의 수월성 교육기능의 확대,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안을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수월성교육에 수준별 이동수업, 독서교육, 창의성교육 등을 부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박종필, 2005; 조석희, 2004).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개편 방안」에서도 수월성에 대한 유사한 대책안을 담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주로 특목고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수월성교육을 "영재교육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과 특목고 교육을 포함하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준별 수업 등 학교 내 특별프로그램"까지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3).

위 두 개의 보고서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교육부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인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수월성 교육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수월성을 교육평등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확립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교육 평등성의 토대 위에서 평준화제도가 갖는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월성 교육을 이해하고 있다. 셋째, 수월성 교육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일부의 학생 특히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수월성 교육을 영재교육 혹 엘리트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수월성에 대한 이해는 앞서 제시한 수월성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협소한 견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월성(교육)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사회의 주류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들어 주요언론에서

수월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글에서 발견 되는 수월성에 대한 이해가 교육부가 보여주었던 견해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 예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내정자는 국가주의적 교육통제정책을 버리고, 학교선택권 및 사립학교 자율성의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과 수월성을 높여야 한다(동아일보 사설 2006. 9. 2)."

"국제중 설립 논쟁은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보편성(普遍性)과 수월성(秀越性)의 대립이다. 논란을 거듭하며 찬성과 반대의 논리도 분명해졌다. 보편성이나 수월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교육적 가치이다(심규선, 동아일보 2006. 9. 4)."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뉴스메이커'다. 특목고 증설, 자립형 사립고, 국제중 등 수월성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육부와 여러 차례 맞서왔다.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집단과 '교육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참여정부 간 갈등의 전위에 선 형국이다(선근현, 경향신문 2006. 9. 5)."

"외고 열풍의 진정한 이유는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키(받)고 싶다'는 수월성(秀越性) 교육에 대한 갈망이다(정성희, 동아일보 2006. 10. 23)."

"한국이 하루빨리 평준화 집착에서 벗어나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정미령, 국민일보 2006. 12. 13)."

"평등을 추구하는 평준화 정책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특목고 정책이 우리사회에서 갈등의 원천이 되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경향신문, 2007. 8. 6)."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받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많이 배출돼야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동아일보 사설 2007. 10. 11)."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까지 영재교육 대상자를 1%로 늘리기로 한 제2차 영재교육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수월성보다는 평준화를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영재교육의 '영'자도 꺼내기 어려웠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영재집단이 가진 창의력은 발굴되지 않은 광맥과 같다. 그 두뇌 속에는 앞으로 우리 국민이 먹고살 성장 동력도 감춰져 있다(동아일보 사설 2008. 3. 11)."

> "수월성 교육은 문제풀이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외국어고·과학고는 물론 자사고를 대폭 늘리고, 중등 과정에도 국제중을 신설하겠다고 한 것은 이를 위해서다(한겨레신문 2008. 7. 22)."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들에서는 교육적 평등성과 수월성이 모두 중요하지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원리를 통한 교육수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과학고나 특목고 같은 우수한 학교들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일부의 진보성향의 언론에서는 수월성을 목표로 설립된 외고, 과학고, 자사고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교육의 평등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입장의 차이는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수월성을 보는 관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 교육부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월성을 평등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선택의 문제로 보는 점이다.[3)]

미국에서도 역시 수월성에 대한 담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1983년 미국의 '교육수월성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가 발표한 '위기에 처한 국가 (A 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였다. 그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점차 쇠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저하를 꼽았다(NCEE, 1983).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밝혀 미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월성교육을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월

3) 물론 가끔 다른 관점으로 수월성을 보는 글이 언론에 나타나기도 한다. 즉 교육수월성을 교육의 보편성, 평등성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수월성 교육은 일반 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보편적 목표이지, 별도의 학교에서 별도로 추구해야만 하는 특별한 목표가 아니다(한겨레신문 2008. 7. 22)."

성에 대한 추구가 일부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의 보편성 추구라는 가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수월성에 대한 이해는 부시 행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인 「No Child Left Behind」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교육정책은 교육의 수월성 향상을 위해 책무성 증대, 학부모의 선택권 증대, 교수방법의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에서 정해진 수준 이상의 성취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이루지 못하는 지역교육구나 단위학교는 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교육적 수월성이란 교육의 성취가 국가 수준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이해와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관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인들의 수월성추구에 대한 생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모토가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교육수월성 (Educational Excellence for All Americans)'이다.

미국에서의 수월성 담론이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하여 보면 수월성의 개념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수월성을 국가경쟁력 향상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경쟁과 시장의 원리에 따른 수월성 추구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러한 수월성 담론이 갖는 한계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수월성의 개념이 대단히 편협하게 된다는 점이다. 수월성을 경쟁과 시장원리에 따른 자유주의적 수월성 개념으로 이해할 때 수월성의 내용은 시험으로 평가 가능한 인지적 능력만을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도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능력의 탁월성이 특히 강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월성을 프라카쉬와 웨익스(Prakash and Waks, 1985)가 제시한 수월성의 네 가지 개념 중 기능적 숙련으로서의 수월성 정도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월성의 개념은 한 인간의 자아실현으로 발전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성숙한 사회 형성을 위한 책무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된다.

둘째, 수월성과 평등성의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여 그 본질을 왜곡시킨다. 교육 수월성과 평등성 추구를 보수적 이념 혹 자유주의의 추구와 진보적 이념 혹 복지주의의 추구로 이분화 시켜 선택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고경화, 2007).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월성을 엘리트 교육으로, 교육평등성은 획일적 평등주의로 그 개념들을 협소하게 이해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종종 교육을 '엘리트교육' 대 '대중교육'으로 대립시키고 이러한 대립이 마치 소수 사람들에게 뛰어난 교육을 시킬 것인지, 혹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낮은 수준의 교육을 시킬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오도하기도 한다 (J. Gardner, 1961).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적합성으로서의 평등성 개념과 자기개발로 인한 장점으로서의 수월성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 둘이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셋째, 이러한 수월성 담론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킨다. 교육수월성이 물질적,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성취와 관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수월성이 경쟁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시키고 있다(Purpel, 2007). 데이빗 퍼플(David Purpel)에 따르면 교육수월성의 개념이 보응(deserving)의 원리를 정당화시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나은 보상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교육적 성취가 뛰어난 학생은 뛰어난 양질의 교육을 하는 영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성취가 낮은 학생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경쟁적 수월성 담론이다. 이러한 보응의 원리가 강화되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조차도 개인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 모든 인간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도덕적 헌신이 조롱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Purpel, 2007).

III. 수월성에 대한 확장된 논의

앞에서 수월성에 대한 논의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월성에 대한 보다 타당성 있고 폭넓은 논의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앞에서 제시한 수월성 개념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하여 수월성에 대한 재개념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수월성을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능력의 개발과 발휘이며, 이는 공동체 내에서 공공선의 확립에 기여하는 자아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수월성에 대한 정의로부터 수월성의 세 가지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수월성의 다양성, 수월성의 사회적 기여, 수월성의 도덕성 등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여기서는 '다양한 수월성,' '사회적 수월성,' '도덕적 수월성'이라는 제목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들 수월성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한 논의는 앞에서 드러난 수월성 담론이 갖는 문제점들에 대한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수월성에 대한 논의 후 수월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제시함으로 수월성에 대한 기독교적 재개념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다양한 수월성

가드너(J. Gardner, 1977)는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된 수월성의 강조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지적인 분야에서도 다양한 수월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학설을 수립하는 종류의 지적활동도 있고,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내는 지적 활동도 있다. 학생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효과적인 표현을 찾는 지적활동도 있고, 연구를 본령으로 하는 지적활동도 있다. 계량적인 연구에 탁월함을 발휘하는 지적활동도 있고, 시적 상상력에 뛰어난 지적활동도 있다. 지적인 분야 외에도 예체능, 공예, 인간관계, 기술적 작업, 지도자로서의 직무, 어버이의 책임감, 경영적인 수완 등에서도 수월성이 존재

한다고 말하고 있다(Gardner, 1977). 또한 그는 인간의 성격 특성과 도덕 특성이 장래의 지적인 업적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격과 도덕적 영역에서의 수월성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양한 수월성에 대한 중요한 또 다른 논거로는 하워드 가드너(H. Gardner, 1991)의 다중지능이론이 있다. 그는 인간의 지능에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대인지능, 자성지능, 자연지능 등이 있다고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지능에 있어서의 수월성은 지능의 종류만큼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심 갖고 있는 수월성 추구의 대상은 특정분야의 인지적 성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도 표준화 시험에 의해 평가ㆍ비교 가능한 매우 협소한 인지적 능력만을 주 관심사로 갖는 경향이 강하다. 김경근(2006)은 학업성취 중심의 일원적, 수직적 능력관에 기초한 수월성 관점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교육실천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시대적 적합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분야의 능력, 소질, 적성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교육의 다양한 수월성은 교육의 평등성 추구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표준화는 수월성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한, 1989).

그런데 다양한 수월성의 당위성과 필요성를 강조한다해도 이것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월성 간의 수직적, 위계적 구분이 엄격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지적인 영역에서의 수월성은 매우 우월한 것으로, 공예나 기술적 작업에서의 수월성은 열등한 것으로 취급된다든지, 혹은 논리수학적 지능에서의 탁월함은 높이 평가되고 대인관계나 자아성찰적 지능에서의 탁월함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면 다양한 수월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수월성이 실제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월성을 위계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윤미, 2006).

그러한 노력의 예를 프랑스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전통적인 엘리트주의적 중등교육체제를 1970년대 이후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평등화로 이행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수월성에 대한 수직적 기준이 유지되면서도 다양한 수월성들의 사회적 가치를 비교적 수평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입학자격인 바깔로레아를 다양화하여 직업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직업 바깔로레아를 취득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헤어드레스나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정한 직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 직업의 수행에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상세화되는 등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선택과 다양성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취급하여 자유경쟁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에 의한 지원 속에서 관리함으로 다양한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가 기울이는 것이다(이윤미, 2002).

2. 사회적 수월성

수월성은 개인적 차원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일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성취되어야 하는 중요 목표이다. 수월성 추구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인간 전체의 삶의 질과 사회문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전체의 격조는 뛰어난 소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추구하는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J. Gardner, 1961). 그러므로 수월성교육은 일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대상으로 각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우리사회의 높은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탁월한 물리학자도 필요하고, 탁월한 기능공도, 탁월한 초등학교 교사도, 탁월한 청소부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가드너(J. Gardner, 1961)는 사회의 성숙이

탁월성을 달성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회적 수월성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수월성을 추구해갈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수월성을 수월성의 중요한 본질로 볼 때 수월성의 개념을 협소하게 만들어서 평등성과 대립시키고 선택을 강요하는 수월성 담론의 허점을 볼 수 있게 된다. 소수에게만 뛰어난 교육을 시키는 엘리트 교육이나 다수에게 낮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획일적 평등주의 교육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사회적 수월성을 이룰 수 없으며 사회전체의 격조를 향상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되는 사회적 수월성은 이 시대 주 담론인 국가경쟁력을 위한 수월성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월성 교육에는 소수의 뛰어난 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 교육의 도구화, 지나친 경제중심주의 등의 사고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적 수월성은 모든 사람들의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에 관심을 가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높은 문화적, 심미적, 도덕적, 경제적 수준에 기여하게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3. 도덕적 수월성

사회적 수월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수월성에 반드시 도덕적 수월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탁월한 물리학자가 있다하더라도 그의 탁월한 물리학적 연구가 개인의 탐욕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 수월성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대신 사회를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월성에는 도덕적 수월성이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팔머(Palmer, 1993)는 지식의 영적, 도덕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그의 저서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한 최고의 과학자들이 보여주는 도덕성이 결여된 우수한

지식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문적 수월성에서 조차도 학문적 신뢰성이나 정직성과 같은 도덕성이 바탕되지 않는다면 학문적 수월성도 이룰 수가 없다(이군현, 2000). 가드너(J. Gardner, 1961)는 도덕성을 갖지 않은 지성의 우수함은 결코 선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수월성은 그 자체가 선일 수 없으며 올바른 생각을 토대로 할 때만이 선일 수 있다고 하였다. 지성적 측면에서나 다른 측면에서의 다양한 수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리, 미, 정의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라이트풋(Lightfoot, 1987) (1987)은 학업적 우수성에 덧붙여 도덕적 성격, 심미적 특징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월성이란 용어 대신 선(goodness)이란 용어를 대신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도덕적 수월성이 수월성의 필수적 속성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 되고 있다. 먼저, 기업에서 조차도 도덕적 수월성이 요구되는 윤리경영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83%의 최고경영자들이 윤리경영을 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김병연, 2006). 기업의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모범적이고,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신임을 얻어 그 회사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윤리적인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윤리펀드의 등장으로 기업에서 도덕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김병연, 2006). 한국 입시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책에서 조기숙(2007)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사담당자와의 면담을 소개하며 도덕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능력이 탁월하지만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과 능력은 떨어지지만 도덕성이 탁월한 사람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누구를 채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 인사담당자는 당연히 후자라고 답하며 능력은 개발될 수 있지만 도덕성의 결함은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답한 일화를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덕적 수월성은 OECD가 제시하는 미래를 위한 학교교육의 목

표와도 관계가 깊다. OECD는 오랜 연구를 통해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역량 (key competencies)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4]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세 가지 핵심역량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팀을 이루어 일을 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OECD, 2005). 이러한 능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포용,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배려의 도덕성을 갖추지 않고서는 사회적 수월성을 성취하기 어렵다. OECD의 보고서 역시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도덕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비슷한 적성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만 모여 있는 학교에서는 길러지기 어렵다고 본다. 학력이 높은 소수의 학생들을 분리하여 교육하는 분리적 교육체제보다는 다양한 가치와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음으로 자신과 다른 학생들을 수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수월성교육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경화, 2007).

4. 수월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

앞에서 수월성의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논의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 수월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성경의 비유들과 인물들 그리고 성경본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성경은 교육적 수

4) OECD와 스위스 연방통계국이 PISA와 연계하여 '역량의 정의와 선택(DeSeCo) 계획'을 1997년 개시하여 2002년 작업을 완료하고 2003년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후쿠다 세이지, 2008).
보고서는 www.pisa.oecd.org/dataoecd/47/61/35070367.pdf에서 볼 수 있다. 참고로, 본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두 가지 역량은 언어, 기술과 같은 도구를 상호교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월성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으로 수월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원리들을 제공해주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 수월성에 대한 성경적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월성은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추구한다. 성경은 수월성을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의 최고 수준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분야에서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양한 탁월함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수월성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부분이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지체 비유이다. 바울은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는 각각의 역할이 있으며 모든 지체들은 차별이 없이 모두가 소중하게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원리를 들어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한다(고린도 전서 12장). 한 몸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 가운데 우수한 지체나 열등한 지체란 존재할 수 없다. 만일 어떤 지체가 기능을 탁월하게 수행하는데 다른 지체는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당장 전체 몸에 이상이 생겨 탁월한 지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그 기능을 훌륭하게 완수할 때 비로소 전체 몸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고린도 전서 12:18)" 그 다양한 영역에서 개개인은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다양한 탁월함은 몸의 건강을 위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14-30) 역시 수월성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비유의 의도는 마지막 날 천국의 심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수월성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며 종들에게 돈을 맡기며 이윤을 남기도록 명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왔을 때 세 종들의 한 일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하여 이윤을 남긴 두 종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땅에 묻어두었던 한 명의 종에게는 심한 책망을 하였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목 할 부분은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길 때 동일한 금액을 맡기지 않았고 "각각 그 재능대로"

돈을 다르게 맡겼다는 점이다. 한 명에게는 1달란트(4억원), 다른 이에게는 2달란트(8억원), 또 다른 이에게는 5달란트(20억원)의 큰돈을 맡겼다.[5]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를 할 때 사업의 결과 남긴 이윤의 금액에 따라 평가를 한 것이 아니었다.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 종이 주인에 대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앎과 불신 때문이었다(마태복음 25:24-25; 김회권, 2008). 결국 주인이 종들에게 요구한 것은 자기들이 가진 재능이 다를지라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faithful) 마음으로 주인이 준 것을 최선을 다해 잘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 비유는 수월성이란 단지 단일한 기준에 의해 산술적 평균으로 나타낼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대해 신실한(faithful) 태도를 갖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수월성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과 관계한다. 성경은 개인의 뛰어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여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고, 직임(service)도 다양하고, 역사(working)도 다양하다고 말한다(고린도 전서 12:4-6). 그러나 각자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심은 공동의 유익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고린도 전서 12:7).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에 탁월할 것을 권면한다(고린도 전서 14:12 NIV).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탁월함이란 선한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디도서 3:8 NIV).

셋째, 수월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이 보여주는 대단히 뛰어난 능력이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성경은 증언한

5) 1달란트=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 1달란트는 대략 4억 원 정도의 돈이 된다.

다. 탁월함을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네 친구들을 들 수 있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의 우수함은 당대 모든 자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다니엘 1:20). 성경은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다니엘 1:17)." 그들의 이러한 우수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요셉 역시 당시 중요한 능력인 꿈을 해석하는 능력에서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자이다. 요셉은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그 꿈 해석 능력의 탁월함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적고 있다(창세기 41:16). 하나님께서 이러한 탁월함을 여러 인물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요셉이나 다니엘의 뛰어난 능력은 결국 동족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넷째, 죄는 수월성을 제약할 수 있다(권오병, 2005). 수월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사람이 죄를 범할 경우 수월성은 훼손될 수 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 능력에서 뛰어난 자이었으나, 그는 서모인 빌하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여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한 자로 전락하게 된다. 야곱은 죽기 전에 르우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더 이상]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창세기 49:3-4)." 죄로 인해 탁월성을 상실하는 다른 예로는 사울왕을 들 수 있다. 그의 초기 인생에서의 인간적 겸손함과 왕으로서의 뛰어남(사무엘 상 10-11장)은 인생 중반을 지나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 성과물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의 탁월함은 점차 상실되어 감을 볼 수 있다(사무엘 상 15장). 특히 다윗을 시기하여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후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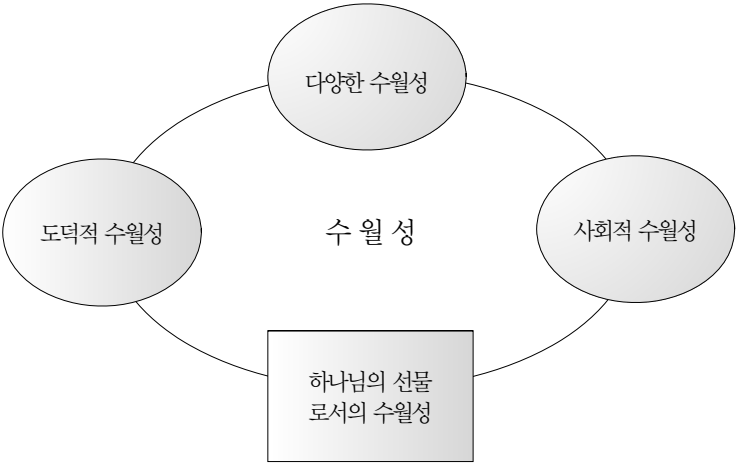
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전념하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사무엘 상 31장).

이처럼 성경으로부터 수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성경은 수월성이 각 개인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수월성은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개인이 지니는 탁월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능력을 성실하게 개발하여 탁월함을 발휘하여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죄로 인해 그 탁월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5. 수월성에 대한 기독교적 재개념화

수월성은 무엇보다 지성의 다양한 측면에서나 그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이 최대한 개발되어 발휘되는 상태라 하였다. 이를 다양한 수월성이라 한다면 이 다양한 수월성이 사회전체의 높은 격조의 성취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의 다양한 수월성이 사회적 수월성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수월성이 수월성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 잡을 때 사회적 수월성에 기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월성의 중요한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는 수월성에서의 다양성, 도덕성, 사회에 대한 기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성경적 가르침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나 지체 비유, 성경전체에서 강조되는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강조 등은 수월성의 세 가지 요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에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점은 수월성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수월성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잠재적 가능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수월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월성을 하나님의 선

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육적 의미를 함축한다. 첫째, 수월성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책무성과 관계한다는 점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탁월하게 발현할 책임을 갖는다. 둘째, 지나친 능력주의 (meritocracy)를 제어하는 기제가 된다. 우리가 지닐 수 있는 탁월한 경지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은 자신의 수월성을 근거로 다른 이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뛰어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림 1〉 수월성의 기독교적 재개념화

이상에서 논의한 수월성의 원리들을 토대로 수월성의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새롭게 도식화 해보면 〈그림 1〉과 같이 된다. 수월성에는 다양한 수월성, 도덕적 수월성, 사회적 수월성이라는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 요소들이 동시에 강조

될 때 수월성은 그 본질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수월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으로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수월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요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수월성은 수월성의 세 가지 요소들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수월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각자는 자기에게 맞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책무성을 갖게 되고, 그 수월성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수월성을 성취했을 때도 겸손하게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IV. 교육수월성과 한국의 대학입시

앞에서 수월성 담론을 분석한 뒤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월성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를 거쳐 수월성의 재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수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새로운 개념 정립이 우리나라의 교육활동을 정상화시키지는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학입시이다.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뿐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교육활동에도 대단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대학입시에서 무엇을 중시하는가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체 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 논의된 재개념화된 수월성을 어떻게 대학입시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입시로 인한 우리나라 교육의 파행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한 원로 교육학자는 입시와 입시교육을 한국교육의 최대 암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정범모 외, 1993). 입시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엄청난 연구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현장에서 미미하게 감지될 정도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는 것은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로는 많은 학생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도 어두울 것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성과 역량을 갖추어 가는 교육을 추구하는 대학입시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 입시를 다시금 반성하고 그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언하려고 한다.

1.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 특징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입시제도를 개편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학생선발권을 두고 국가와 대학이 연속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성기선, 2007; 정범모 외 1993).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입시제도와 비슷한 틀이 형성된 1994년 이후의 입시 제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먼저 1994년 이후 오늘날까지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다음 2002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현 입시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81년 입시부터 1993년 입시까지 실시되었던 대학입학학력고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1994년 입시부터 등장하게 되었다. 학력고사(achievement test)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별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고, 수학능력시험(scholastic ability test)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영역별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13년 동안이나 유지되어 온 학력고사가 폐지된 데는 학력고사가 지니고 있었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연유했다(박도순·장석우, 1993). 첫째, 학력고사는 창의성이나 분석적 사고, 종합적 사고와 같은 고차적 정신 능력을 측정하는데 미흡했다. 둘째, 단편적 지식이나 사실의 이해를

중시하게 되어 학교에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셋째, 학력고사에는 전인적 발달과 관련되는 부분이 없어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에 더욱 소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넷째, 고교 내신이 측정하는 능력과 유사한 능력을 측정함으로 대학 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하는 기능면에서도 비효율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4년에 걸쳐 연구, 개발, 실험평가 되었고, 1994년 입시부터 정식적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1994년 당시 수능시험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이던 것이 현재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의 5개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영역과 과목 면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대폭 부여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수능시험이 제도화되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능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개선안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연구보고서에는 수능에 대한 냉혹한 비판을 담고 있다. "현행 수능시험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이종승 외, 2004: 41). 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방향인데 현재의 수능시험은 그것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수능 외에 다른 대안적 시험이 없는 현 상황에서 모든 학교들이 수능에만 몰두하게 되어 교육 내용, 교수·학습·평가 방법 등이 획일화, 대중화, 표준화되어 학교교육이 전문화, 다양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는 수능시험의 성격의 애매성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원래 수능시험은 대학 교육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지만 점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토대한 과목별 성취수준의 평가가 가미되어 학력고사의 성격과 학업적성검사(scholastic aptitude test)의 성격을 함께 갖게 되어 그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성기선, 2007; 이종승 외, 2004).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어)영역은 범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는 학교교육에서의 교과내용과 불일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도 지적한다.

그리고 수능시험의 내용에 있어서의 특징은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관계없이 한 종류의 시험밖에 없다는 점과 문항의 형태가 소수의 단답형을 가미한 선다형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쉬운 수준의 시험과 어려운 수준의 시험을 나눌 수 있고, 학력고사와 학업적성검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입시를 구성하는 SAT I은 쉬운 수준의 학업적성시험이고, SAT II는 중간 수준의 과목별 학력고사이고, AP (Advanced placement) 시험은 어려운 수준의 학력고사이다(이종승 외, 2004). 문항의 형태에서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가 없다는 것은 수능이 깊이 있는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영국의 대학입학시험에 해당하는 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School)나 A-레벨에서는 수행평가나 주관식 지필고사가 중요한 평가방식이다(이병곤, 2007). 그리고 프랑스의 입시인 바칼로레아가 고등사고력을 평가하는 논술식 시험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으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현행 대학 입시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 입시제도의 큰 특징은 입시가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다양한 선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소위 '한줄 세우기'가 아닌 '여러 줄 세우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형방법의 많은 부분을 대학에 일임하여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확대시켜 주고 있다. 실제 2005년 대학입시의 경우 특기자 전형, 취업자 전형, 실업계고교 학생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을 포함한 특별전형을 통해 전체모집 인원의 36.6%의 학생을 선발하였고, 학생생활기록부와 면접을 중심으로 보는 수시모집에서 42%의 학생을 선발함으로 전형방법의 다양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입시제도에 대한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현 입시제도가 갖는 특징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기도 한다(양승실, 2004). 첫째, 대입전형의 다양화가 오히려 사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입전형이 대학에 따라 다르고 복잡하다보니 입시 정보가 중요하게 되고 입시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교육이 발달하게 된다. 또한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과 면접은 학교에서 대개 준비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고, 수능 역시 범교과적, 탈교과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학교의 교과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사교육의 축소를 목표로 한 현 입시제도가 거꾸로 사교육을 확대시킴으로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현 입시제도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과영역이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봉사활동은 형식화되어 입시를 위한 시간 채우기로 변질되고 있고, 학생생활기록부의 비교과영역 기록이 학생의 입시에 유리하도록 미화되어 학생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다. 수능에서 제외되는 학교 교과는 종종 무시되기도 하고 수업방식에 있어서도 주입식, 유형별 문제풀이식의 전통적 방법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입시 전형 방법과 학교의 교육과정이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 대학의 전형 방법은 다양화되어 학생들의 특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현재 다양화된 입시전형으로 인해 오히려 중압감을 느낀다고 한다.

넷째,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력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간의 내신점수나 수능점수의 차이가 심한 편이다. 그럼에도 대학에서는 낮은 학력의 입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2. 수월성의 관점에서 본 현행 대학입시의 문제점

앞에서는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일반적인 특징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히 이 논문에서 재개념화한 수월성의 관점에서 입시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대학입시가 다양한 수월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사회적 수월성과 도덕적 수월성이 입시로 인해 강화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약화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대학입시와 다양한 수월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실제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면이 많음을 지적할 수 있다. 2005학년도의 입시에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수가 전체 입학생의 36.6%라는 사실은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있어 그만큼 다양화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전형 가운데 특히 특기자 전형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수월성을 촉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각 대학들은 문학, 음악, 체육, 무용, 미술, 수학, 과학, 외국어, 건축,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런데 실제 대학들이 중요하게 고려하여 많은 인원을 뽑는 분야는 수학과 과학, 외국어 특히 영어 능력의 탁월함을 인정하여 선발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능력들은 일반 전형에서도 중요하게 간주되어 높은 배점을 갖는 요소들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입시가 특정 분야의 재능을 특별히 높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는 다양한 수월성 간에 위계적 차이가 있음을 은연중에 정당화하는 것으로 다양한 수월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 성적 역시 다양한 수월성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선다형 문제가 주가 되어있는 수능시험은 창의력, 탐구력, 비판적 사고 같은 고차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정범모 외, 1993; 홍후조, 2004) 주로 수능시험을 대비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에서는 고등사고능력의 향상

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수능시험을 대비한 반복적인 문제풀이식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수월성과는 거리가 먼 교육이 시행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내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간, 기말고사 역시 암기한 교과내용을 확인하는 식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 마저도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김석우, 2007)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악기연주를 평가하는 식으로 되어 수행평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문제풀이식의 일제식 수업 방식이 선호되고 있고, 다양하고 새로운 교수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를 못한 실정이다(양승실, 2004). 또한 모든 혹은 많은 과목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토대로 선발을 하는 입시구조이기 때문에 한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성적이 낮을 경우 입시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입시제도는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충분히 개발시켜 주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게 학교에서 진로지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교사들 역시 80% 이상이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진로지도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실정이다(양승실, 2004).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가 사회적 수월성과 도덕적 수월성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 대학입시제도 가운데 실시되고 있는 특별전형 중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 소년소녀 가장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전문계 학교 졸업생 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 등은 사회적 수월성에 기여하는 제도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불리하여 고등학생의 수준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덜 발휘했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능력의 우수함을 개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 사회적인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전형을 통해 그러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수월성에 기여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 제도가 사회적 수월성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그들이 대학에서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선다형 시험인 수능시험을 통해서 도덕적 수월성이나 사회적 수월성을 고취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반면 고교 생활기록부상에서나 면접, 논술과 같은 대학별 고사에서 도덕적 수월성과 사회적 수월성을 평가함으로 학생들에게 그러한 것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 입시에서 내신 성적을 대부분 결정하는 교과영역 성적에서는 학생들의 도덕성이나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등 정의적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간혹 수행평가를 위해 팀과제를 제시하여 함께 협력하는 능력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비교과영역에서 조차도 봉사활동 등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원래 의도한 것과는 달리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에 별로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고사나 적성검사 역시 학업적인 면을 강조하고 도덕적인 면이나 정의적 측면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에 따라 면접에서 학생들의 사회성, 도덕성, 리더십 등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별 고사에서 워낙 비중이 낮아 대학별 고사를 통해 도덕적, 사회적 수월성을 고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요약을 하면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형식적인 면에서 다양한 수월성이나 도덕적, 사회적 수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수월성 추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선발하거나 학생들의 불리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는 특별전형 제도, 학생들의 고교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직접 학생을 대상으로 말이나 글로써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 대학별 고사는 앞에서 개념화된 수월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은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는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능력

을 개발시킨다든지 도덕적 성품을 심화한다든지 하여 전사회의 성숙에 공헌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입시의 개혁

대학입시가 우리나라에서 수월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개혁 뿐 아니라 개선된 입시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입시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입시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은 근본적인 논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시제도의 개혁안과 더불어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첫째, 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수능시험에 서술식·논술식 문제를 포함시키되, 점차적으로 수능의 비중을 축소하고, 고교내신의 비중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다형 시험형태로는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력 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수능이 수월성교육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능에 서술식·논술식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술식·논술식 문제를 수능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문제였다. 평가의 객관성은 가능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평가의 타당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고집할 것은 아니다(정범모 외, 1993). 오랫동안 대학입시에 서술·논술식 시험이나 수행평가를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평가의 객관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고등사고력을 평가하는데 주관식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병곤, 2007).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나라와 달리 서술·논술식 문제를 수능에 넣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사회적 신뢰의 부족과 관계한다. 주관식 문제에 대한 채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신뢰의 문제는 입시제도의 정상화에 방해되는 핵

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수능채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점차적으로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줄여가야 한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교육개혁 방안은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송인수, 2004; 홍후조, 2004). 수능 대신 고교 내신을 선발기준으로 삼자는 것이 많은 개혁안의 핵심 주장이다. 국가 표준화시험인 수능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기도 어렵고 도덕성 평가도 힘들기 때문에 점차 줄여가는 것이 수월성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잘만 운영된다면 고교 내신이야말로 학생들의 수월성을 신장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의 성장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도 있고, 다양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잘 드러나지 않은 잠재력까지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학업에 대한 동기라든지 열정까지 평가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방안들은 수월성의 신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박성익, 2006; VanTassel-Baska, 1997). 그러나 현재의 고교 내신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학생들의 수월성 신장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단순 사실의 암기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며, 학생 상호간에 경쟁을 조장하는 분위기며, 점수를 얻기 위한 형식적인 봉사활동 등은 고교 내신의 비중을 늘리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다.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학부모나 대학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학 역시 학교가 하는 평가 방식을 알고 있고, 과거에 학교가 보여준 성적 부풀리기 등의 비도덕적 행태로 인해 학교를 신뢰할 수 없어 내신의 비중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먼저는 고등학교에 학생 평가권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고교 내신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교 내신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수능과 같은 표준화시험이 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이나 도덕적, 사회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평가의 가능성을 여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고교 내신의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고등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내신이 학생들의 수월성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학교교육과 평가로서는 어렵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단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개발시켜주고, 학생들의 개발된 능력을 사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덕성을 길러주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교수방법의 변화이다.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수월성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개별화 맞춤식 교육이다(김경근, 2006; 박성익, 2006; 박종필, 2005). 개별화 맞춤식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중심의 일제식, 문제 풀이식 교육으로부터 벗어나서 학생 중심의 탐구식 수업으로 교수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학생 각자의 개성에 맞게 학습주제와 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면 각 학생들은 자신의 탐구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팀별 과제를 부과하여 함께 탐구하게 하면 상호관계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어 수월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학업 성취의 결과뿐 아니라 공부하는 태도와 열정, 자아효능감과 흥미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 앎의 실천 정도 등과 같은 학습의 과정과 정의적인 측면까지 평가를 할 수 있어 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방법이나 평가는 교사들의 부단한 연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물들이다. 이런 교육적 성과는 위로부터의 제도개혁에 의해 성취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학교교육의 변화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허병기, 2000). 즉, 교사들 스스로 학교교육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변화를 위한 작은 시도를 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은 시도들이 학교의 문화로 정착될 때 학교교육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수업개선을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방

안으로는 비교적 잘 정착되어 가는 교사 자율연수를 통하는 것이다. 자율연수에 수월성에 대한 논의나 수월성을 위한 교수방법의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토 마나부 (2001; 2006)가 소개하고 있는 '수업연구회' 활동 역시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수방법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6] 셋째, 입시제도의 개혁안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건강한 문화 형성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앞에서 제시한 개혁안들이 이전에도 제기되고 실시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입시제도의 변화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사회적 변화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변화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사회적 신뢰성 확보와 학력(學歷)주의, 학벌(學閥)주의적 사회구조의 개선에 대해 생각하기로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사회적 신뢰성의 결여는 대학입시의 개선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교 담당자들이 먼저 정직하게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며 사회와 대학은 학교에서 행사하는 학생에 대한 평가를 믿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불신의 문화가 가득한 사회에서는 정직하게 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정직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먼저 기독교학교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직하게 학생을 평가해야 하며 기독교대학 역시 학교의 평가를 신뢰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 신뢰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입시제도의 개혁에 성공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학력(學歷)주의와 학벌(學閥)주의가 입시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학력과 학벌이 사회적 성공의 주된 방도가 되는 사회에서는 학력과 학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학력이나 학벌을 통해 얻게 되는 성공의 결과가 사회적 부와 권력을 독

6) 수업연구회는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수업공개를 하고, 공개된 수업을 함께 관찰한 후 형식에 얽매임 없이 토의하는 모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우학교를 비롯해 여러 학교에서 시도를 하여 성과를 보고 있다.

점하는 것이고, 학력이나 학벌을 얻지 못할 때는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상황이면 경쟁은 더욱 비인간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입시문제의 핵심에는 학력주의、학벌주의와 승자독식주의를 정당화하는 사회제도가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는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사회정의의 문제와 약자에 배려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입시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는 과정적 정의나 분배적 정의와 같은 사회정의가 제도화되도록 노력하는 실천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월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는 기독교적 관점은 학벌주의 사회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뛰어난 능력으로 사회적 권력과 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약자에 대해 배려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배려를 사회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사회와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것이 '교육개혁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의 개최이다. 우리나라에서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전국민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나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주는 개혁안으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당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학교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입시 개선의 문제, 학교교육 정상화의 문제, 사교육 절감의 문제 등 현실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자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년에 걸쳐 교육대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이종재 외, 2004).[7)]

7) 프랑스 교육대토론회는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교육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사와 행정가, 학교와 학부모간의 신뢰구축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고, 토론회를 통해 향후 15년간 프랑스의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시락 프랑스 대통령의 담화문을 시작으로 대토론 위원회에서 국민여론을

비록 토론회를 통해 교육 목표나 입시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교육적 활동에 대해 전국민이 함께 숙고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사색과 반성이 없는 분주함의 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은 고달프다. 그 고달픔이 자신과 사회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에 밑거름이 된다면야 참고 견딜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를 못하다. 김회권(2008; 64)의 말처럼 우리의 아이들은 "밤 12시까지 학원에 속박된 채 꿈을 잃어[버리고]... 병영 같은 한국사회에서 순응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비순응적 사회일탈자로 살 것인지를 강요[당하는]... 복음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땅 끝에 존재하는 이방인들"인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와 아이들이 그토록 힘들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창의성, 문제해결력,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 정직과 성실과 같은 높은 도덕성 -의 탁월함이라기보다는 단지 높은 시험점수와 명문대 입학이다. 우리나라의 입시가 우리 아이들과 사회의 탁월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수월성과 대학입시를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 사안으로 보고 이 두 가지 주제를 탐구하였다. 먼저, 우리사회에서 대단히 편협 되고 협소하

수렴하여 토론주제를 정하고 학교별, 지역별, 사회단체별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보고되며 전문가들에 의해 보고서가 분석되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다. 오프라인(off-line) 토론회가 총 13,000회 개최되었고, 온라인(online) 포럼 참가자 수는 37만 명에 이르는 등 방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게 이해되고 있는 수월성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우리사회에서의 수월성에 대한 주류담론들을 분석하였다. 수월성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여 그기에 유용한 특정 영역에서의 수월성만을 강조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월성이란 경쟁을 통해 승리한 뛰어난 소수를 위한 개념으로 오인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왜곡된 수월성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학자들의 수월성에 대한 논의로부터 수월성의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을 찾아서 살펴보았다. 즉, 수월성은 특정 분야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다는 다양한 수월성, 개인의 수월성은 전사회적 성숙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수월성, 개인의 수월성이 사회적 수월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도덕적 수월성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수월성에 대한 네 가지 원리들을 찾아보았다. 수월성은 다양함 가운데 조화를 추구해야 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수월성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수월성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수월성이란 다양한 수월성, 도덕적 수월성, 사회적 수월성이 동시에 강조되는 것이며 수월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각자에게 맞는 수월성을 개발하기 위한 책무성을 지니게 되며 약자에 대한 배려를 베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입시에 대한 논의에서는 먼저 현 입시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수월성의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시의 개혁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현 입시제도는 '한줄 세우기'가 아닌 '여러 줄 세우기'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이전보다 발전된 제도라 할 수 있다. 특별전형과 수시전형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특기를 고려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수월성과 도덕적 수월성이나 사회적 수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제도는 실제에서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특정 능력의 탁월함에 대한 선호나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 담당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부족 등으로

그 제도가 추구하는 의도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시가 진정한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개혁과 함께 사회적 여건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수능시험에 서술식·논술식 문제를 포함시켜야 하고, 학생을 가까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험인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고교내신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고교내신의 강화는 고등학교교육의 변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주입식, 일제식 수업방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학생 중심의 탐구식 수업방식을 도입하여 개별화 맞춤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수행평가가 제대로 될 때 고교내신의 강화는 수월성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고교교육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교사들로부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교육개혁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교육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다. 학력주의, 학벌주의적 가치가 보편적 문화가 되어있고 제도화되어 있는 우리사회에서 치열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기란 쉽지 않다. 치열한 학력경쟁은 필연적으로 수월성의 개념을 협소화하고 입시를 비인간화시킨다. 그러므로 다양한 수월성이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는 다양성의 사회, 탁월하지 못한 자에게도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해 가는 것이 우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더불어 올바른 수월성을 추구하는 건강한 학교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주위 사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 역시 학교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건강한 사회가 건강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학교 역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Goodlad, 1994). 탁월함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탁월성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모든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

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를 가진 자들이다.

참고문헌

고경화 (2007),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관계 논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 12(2), 1-22.

고요한 (1989),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 (2004),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 종합대책.

_____ (2007), 수월성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

권오병 (2005), "기독교대학 경영의 역세속화를 위하여: 대학의 사역적 탁월성과 학문적 수월성의 관점에서," 『로고스 경영연구』, 3(1), 71-76.

김경근 (2006), "한국 중등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위한 과제," 『교육학연구』, 44(1), 1-21.

김경자 (2002), "교육과정 측면에서 본 세계화·정보화 환경에서의 학교교육의 수월성," 『교육학연구』, 40(3), 21-46.

김병연 (2006), "윤리펀드가 필요한 이유," 『한경비지니스』, 2006.4.21.

김석우 (2007), "고등학교 과학과 수행평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교육평가연구』, 20(4), 53-73.

김성수 (2006), "교육에 있어서 평등성과 수월성의 문제," 기독교학문학회 23회 학술대회 기조강연, 총신대학교.

김신일 (2000),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김회권 (2008), "입시경쟁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입장," 박상진 외,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문용린 (2002),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추구,"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7·8호, 43-49.

박도순・장석우 (1993), 『새 대학 입학 시험제도』,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박성익 (2006), "수월성교육의 개념과 방향," 조석희, 『모든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RM 2006-30.
박종필 (2005), "수월성 교육 정책의 문제와 발전 방향 탐색: 수월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13(3), 29-46.
사토 마나부 (2001), 손유정 역, 『교육개혁을 디자인 한다』, 서울: 공감.
_____ (2006), 손유정 역,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서울: 에듀케어.
서울대 교육연구소 (1989),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
성기선 (2007), "한국사회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성찰," 송순재 엮음, 『대학입시와 교육제도의 스펙트럼』, 서울: 학지사.
송인수 (2004),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공교육정상화 방안 검토: 교육혁신위원회 대입제도 혁신안을 중심으로," 기독교사대회 발표자료. 호서대학교.
양승실 (2004), "2002년 이후 새대학입학제도의 운영실상과 영향 그리고 나아갈 길," KEDI Position paper, 1(11).
이군현 (2000),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 『교육과정연구』, 18(1), 21-43.
이병곤 (2007), "영국의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의 최근 동향," 송순재 엮음, 『대학입시와 교육제도의 스펙트럼』, 서울: 학지사.
이윤미 (2002), "프랑스 중등교육 개혁의 시사점: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29(2), 57-79.
_____ (2006), "수월성교육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토론," 조석희, 『모든 학생을 위한 수월성교육』,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RM 2006-30.
이종승 외 (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종재 외 (2004), "프랑스 국민교육대토론회의 시사점," KEDI Position Paper, 1(8).
정범모 외 (1993),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입시와 입시교육의 개혁』, 서울: 나남.

조기숙 (2007), 『왜 우리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서울: 지식공작소.

조석희 (2004), "수월성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평론』, 70-88, 한국교육개발원.

허병기 (2000), "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18(1), 205-232.

홍후조 (2004), "2008년 이후 대학입시 전형제도의 변화," 『한국교육평론』, 147-162, 한국교육개발원.

후쿠다 세이지 (2008), 나성은, 공영태 역, 『필란드 교육의 성공』, 서울: 북스힐.

Gardner, H. (1999), *Intelligence Reframed*, 문용린 역 (2001), 『다중지능: 인간 지능의 새로운 이해』, 서울: 김영사.

Gardner, J. W. (1961), *Excellence: Can We Be Equal and Excellent Too?*, 김영식 역 (1977), 『교육의 우수성과 평등』, 서울: 재동문화사.

Goodlad, J. I. (1994), *Educational Renewal: Better Teachers, Better Schools*, San Francisco: Jossey-Bass.

Lightfoot, S. L. (1987), "On Excellence and Goodness," *Harvard Education Review*, 57(2), 202-205.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 (1983), *A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Mep_interieur 27/05/05 9:17, www.pisa.oecd.org/dataoecd/47/61/35070367.pdf.

Palmer. P. (1993),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Spiritual Journey*, 이종태 역 (2006),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Prakash, M. S and L. J. Waks (1985), "Four Conceptions of Excellence," *Teachers College Record*, 87(1), 79-101.

Purpel, D. (2007), "What Matters," Addressed at a Conference hosted by

The Kuyers Institute for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Calvin College, MI.

Starratt, R. J. (1996), *Transform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Meaning, Community, and Excellence*, New York: McGraw-Hill

VanTassel-Baska (1997), "Excellence as a standard for all education," *Roeper Review*, 20(1), 9-12.

Abstract

Christian Reconceptualization of Educational Excellence and Reform of College Entrance Exam

Young Taek Kang(Woosuk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educational excellence and college entrance exam, which are key issues of Korean education. Above all, it analyzes the discourse on excellence in our society to redefine concept of excellence, which has been treated too narrowly. It discusses three key factors of excellence such as diverse excellence, social excellence, and moral excellence, based on many educational scholars' discussions of excellence. I spell out four principles of educational excellence on the basis of Bible. Excellence pursues harmony among diversity and contributes to community. It is a gift given by God and can be deteriorated in terms of human sin. This article studi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college entrance exam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excellence. I suggest that we should reform college entrance exam system and at the same time change social environment in order to seek reconceptualized excellence through entrance exam. Finally I suggest All People Discussion Project for Educational Reform participated by many people because educational reform

needs great efforts of our whole nation.

Key Words: Educational Excellence, Christian Excellence, Equality, College Entrance Exam, Educational Reform